

**제11대 총여학생회 선거와
학내 여성운동의
새로운 연대질서를 위한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다시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느때처럼 모든 연세 여학우들에게는 선거용지 한 장이 더 주어질 것입니다. 총여학생회 선거 용지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빈번한 학내 성폭력이나, 졸업 후에도 갈 곳이 없는 여성실업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는, 단순히 한 장의 표를 훨씬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저희는 총여학생회 선거가 뻔한 연례행사가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거용지에 도장 하나 더 찍는 것으로 여성운동이 축소되는 것 역시 반대합니다.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현실적인 억압과 차별에 있다면, 그 형식과 내용은 바로 여성

들 자신에 의해 결정되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총여학생회가 정말 우리 여학우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내의 다양한 여성운동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봅시다!

여성문제가 나 자신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인 이상,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이는 것,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만 풀어 왔던 힘겨운 싸움들을 보다 넓은 연대의 틀로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조금씩 다른 입장과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다 평등한 사회, ‘여성이라는 것’이 삶의 방해물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모였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세에서 살아가는 여학

우들의 각자 선 자리는 모두 다르겠지만, 그 다름이 모일 때 더 풍부한 여성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모든 연세 여학우들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학내 여성운동의 ‘연대’와 11대 총여학생회 선거 여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이제까지의 논의과정

최초의 제안은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에 속

해 있던 두 명의 여학우(시타/새)에 의해 이루어 졌고, 곧 학내 여성자치단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까지 2회의 모임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각의 단체들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초벌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학내의 연대질서 논의가 결국 임박한 총여학생회 선거와 무관하지 않은 이상, 이 문제를 저희들끼리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연세 여학우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는 의미에서, 함께 대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무엇을 토론할 것인가?

〈주제1〉 여성운동의 새로운 연대 질서?

학내에는 여러 가지 여성운동의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각자의 공간에서 작은 여성모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총여학생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아직 모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여성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연대”입니다.

이것은, 뜬구름잡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성학 세미나를 위한 커리큘럼의 유통에서부터, 여성문제에 관한 크고 작은 학술제, 이벤트, 문화 행사, 성폭력 학칙/자체규약 제정 운동

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입니다. 숨어 있던 여성들이 서로 만나고, 어려움을 나누며,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토론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제2〉 두 개의 실험, 그리고 제 3의 길?

: 제 11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대하여

학내의 여성운동에서는 이제까지 크게 두 개의 실험이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97년도에 있었던 “여성자치연합”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입니다.

주지하다시피, 2-3년 전까지의 총여학생회는 사실상 총학생회의

정치적 입장을 도와주는 부설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속에서 여성운동은 생리대 자판기나 여학생 휴게실 등의 (소위) ‘복지’에 관한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양상을 띄어 왔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성차별과 성폭력 등의 문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보다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과거의 총여학생회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가해져 왔습니다.

“여성자치연합”은 한번의 선거를 통해 학생회가 구성되는 질서에 반대하면서 97년에 등장하였으며, “하나의 입장, 유일한 대표성”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들의 자발성과 동시다발적인 목소리들의 연합체”를 표방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의한 대표성”만이 인정되는 학생회 질서 속에서 수많은 난관을 거쳤으며, 그 결과 속단하기 어

려운 여러 장단점을 지녔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98년, 제 10대 총여학생회는 “여성주의”를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그때까지의 실험들을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학생회이면서도 여러 여성자치단체들의 목소리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중간평가가 가능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한번의 선거 시기를 맞은 지금, 이제까지 있어 왔던 이러한 실험들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졌었는지에 대한 우리들 모두의 평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 형태가 여성들을 위해 가장 적절할 것인가”를, 지금 당장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제 11대 총여학생회 선거를 할 것인지, 말 것인

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여학생회 선거 여부, 그리고 선거를 한다면 기존 선거의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고, 안 한다면 어떤 제 3의 조직 형태가 가능할 수 있을지는, 오직 연세 여학우들 자신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를 더 이상 “당연한 연례 행사”로 방치해 두지 맙시다.

3.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위와 같은 의도 하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모든 여학우들 및 저희가 모르고 있는 숨은 여성 소모

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 대토론회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총여학생회는 우리들 자신의 것입니다.

▶ 날짜 : 98년 10월 14일 수요일 늦은 6시

▶ 장소 : 학생회관 3층 푸른샘

▶ 주제 :

(1) 학내 여성운동의 새로운 연대

- 이제까지 자치단체모임에서 제안되었던 연대의 구체적 방법들
- 토론회에 참여해주실 여학우들의 제안
-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들에

대한 의견교환

(2) 11대 총여학생회 선거 여부와 '99 여성운동 질서에 대한 토론

- 〈제 10대 총여학생회에 드리는 공개 질의서〉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답변서 및 각 여성자치단체들의 의견서를
비탕으로 한 학내여성운동에 대한 총괄적 평가
 - 모든 연세 여학우들이 의견란에 써주시는 질문과 문제제기
 - 제 11대 총여학생회 선거에 대한 토론
-

문과대 여성모임 (준)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공대 여성모임 (준)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 "womb"

여성주의 모임 "13번째"

[두입술] 편집위원회

신과대 여성모임 "물구나무"

총여학생회와 학내 여성자치질서에 대한 공개질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제까지 연세에서 있었던 여성주의 질서의 두가지 실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가능한 한 자세히 기술해 주십시오.

[질문 1] 여성자치연합이라는 형태의 연대 질서는, 어떠한 장점 혹은 단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2] 총여학생회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장점 혹은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년도 학내 여성운동 질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성자치연합/총여학생회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여성자치연합(과 유사한) 형태로 가게 될 경우 : 즉, 제11대 총여학생회
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

[질문 3] '총여학생회'라는 물질적 기반 (공간, 재정)은 어떤 식으로 획득/보장될
수 있을까요?

[질문 4] 기존의 선거 형식을 통한 총여학생회의 구성이 일반 여학우들의 '실질적인 대표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5) 97년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질서 하에서 “선거를 거치지 않은 조직”이라는 사실이 총학 및 학교 본부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만약 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6] 97년도 여성자치연합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활성화된 단체에게로 대규모 사업이 과부하되는 것 / 새로 생겨난 여성모임들의 위치 및 활동상의 애매함) 들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 총여학생회를 계속 유지할 경우 : 즉 11대 총여학생회 건설될 경우

[질문 7] 학생회 중심 사업에서 빛어지는 “싸이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총여학생회'가 벌이는 (전 연세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대중적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를 써 주시고, 안 그렇다면 총여에서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써 주십시오.

[질문 9] '총여학생회'와 학내 여성자치단체들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까요? (예산의 분배문제에서부터 상호간의 위상 정립 문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소통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질문 10] 제10대 총여를 뒤돌아보면서 부족했던 점들 중에서, 내년도 총여학생회에서 꼭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과 시정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 활발한 토론을 위하여 개인적인 입장을 정리해 보는 질문입니다.

[질문 11] 현 시점에서 선거를 치를 필요가 있다고/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은 위의 두 질서를 넘어선 제 3의 길이 가능하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 회장단 선거가 아닌 선본의 선거라던가, 여성자치 연합에 총여 집행부 기능에 상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던가 등등.)